

# “생각의 높이가 높아져야 삶의 질 풍족...자기만의 별 보려는 노력 필요”

## 광주일보 제6기 리더스아카데미 개강 강연 최진석 교수

### 선진국 되려면 국민 전체가 선진국으로 살아가는 시선 필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지니지 못한 국가 퇴보는 정해진 순서

“개인과 국가가 지닌 시선의 높이는 삶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시선의 높이는 다른 말로 생각의 높이입니다. 생각이 높이가 높아져야 삶의 질이 풍족해집니다.”

지난 13일 오후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제6기 리더스아카데미’ 개강 강사로 우리 시대 ‘인문학 전도사’로 불리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최진석(59) 교수가 나섰다. 이날 강연은 예정된 시간보다 20분을 넘길 정도로 수강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는 자신이 집필한 저서인 ‘탁월한 사유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로 운을 땀다.

그는 “탁월한 사유의 시선 중에 가장 중

요한 단어는 무엇일까? 그것은 ‘시선’이다. 시선이란 어느 정도 높이가 있다는 말이다. 그 높이만큼 공간이 생기는데 이것이 즐거움이 된다”며 “박물관과 가라오케 중 박물관에 더 끌린다는 것은 자기 시선의 높이가 박물관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내가 가진 시선의 높이에 따라 가려는 곳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물관과 갤러리의 연간 회원권을 예로 들어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었다.

최 교수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3년간 지낸 일이 있었다. 거기는 연말이 되면 시민들이 박물관이나 갤러리에서 파는 1년 회원권, 가족 회원권을 사기위해 줄을 서서



최진석 교수

기다린다”면서 “그 지역을 가지고 한국에 왔더니 파는 곳이 없었다. 한국은 박물관이나 갤러리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 드물다. 지금도 단 1곳의 갤러리만 회원권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아르헨티나의 예를 들며 한국이 예전의 후진국으로 퇴보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때 세계 7위의 경제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의 선진국 진입 여부에 관심이 쏠렸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국민 전체가 선진국으로 살아가는 시선을 갖춰야 하는데, 아르헨티나는 후진국의 시선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어 그는 “한국은 현재 중진국에서 상위권이다. 여기서 선진국 진입에 실패하면



2018년 ‘제6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첫 강좌를 맡은 최진석 서강대 교수가 ‘시선과 생각의 높이’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르헨티나처럼 삶의 질은 급격히 후퇴할 것이다” 덧붙였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니지 못한 국가의 퇴보는 정해진 순서라는 게 최 교

수의 주장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며 감탄을 하지만 자기만의 별을 보려는 생각을 안 한다. 한 번은 별처럼 살아봐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밖에 있는 것만 보고 세월을 보내지 말고 진정한 자신의 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 손보협 호남본부, 나주경찰서에 교통안전물품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본부장 김양식)는 14일 경찰청의 ‘보행자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추진 사업-전남도지역교통약자배려 캠페인 등과 관련, 노인 등 교통사고 예방 운동을 적극 추진중인 나주경찰서(서장 박종열)에 교통안전물품을 전달했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 안국산업(주) 곡성휴게소·주유소, 광주고에 장학금



안국산업(주) 곡성휴게소·주유소(대표 김성수)는 최근 광주고등학교를 방문해 인제 육성에 써달라며 장학금을 전달했다.

<안국산업(주) 곡성휴게소 제공>

## 광주대 체육부 출신 프로선수들 모교 발전기금



광주대학교 체육부 출신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모교에 발전기금을 쾌척했다. (사진)을 시즌 프로축구단에 입단한 김재봉(성남FC·맨 인콰)과 김예성(대전시티즌)은 지난 12일 광주대 집결실에서 김혁중 총장에게 발전기금 약정서를 전달했다.

소속 구단 일정 등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남주 축구 정호민(광주FC·김해시청 임대)·모재현(수원FC)·이준석(광주FC) 선수와 여자 농구 김진희·경은빈

(이상 우리은행) 선수도 발전기금 약정서를 냈다. 이들은 학교 발전과 후배 양성에 힘을 보태겠다며 각각 2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김혁중 총장은 “모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몸 건강하고 성실하게 훈련해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훌륭한 선수로 성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함창환 전남복지재단 팀장 ‘알고 싶은 복지현장...’ 책 펴내

사회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녹여낸 책 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함창환(52·사무관) 전남복지재단 행정지원팀장은 ‘알고 싶은 복지현장, 10명의 달인에게 묻다’를 공동 출간했다.

이 책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민간 사회복지사 등 경력 10년 이상인 복지직 ‘달인’ 10명이 현장에서 주민들과 부대끼며 느낀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사회 복지 공부를 시작한 새내기 대학생, 새로

운 전환점이 필요한 현직 복지사들에게 유용한 업무 기법을 들려준다.

/백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인사

- ◆곡성군 ◇5급 전보
- ◆복지실장 김인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선임 ▲비상임이사 정학수



## 영산강보존회·삼학도보존회 설립...환경운동 산증인

### 환경운동가 서한태 박사 별세

“못된 사람은 역사가 심판하고, 우리의 바보짓은 자연이審判한다”

대한민국 환경운동 1세대이자 전남 환경운동의 산증인인 서한태 박사의 좌우명이다. 그가 14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서 박사는 의대 재학시와 군의관 시절을 빼고는 고향 목포를 떠난 적이 없는 토박이다. 고인은 본업인 의사보다는 환경운동가로 더 알려졌다. 목포 시민의식수원에 영향을 주는 영산강 상류의 주정공장 설립(1983년)을 막아낸 것이 환경운동에 뛰어든 계기가 됐다. 이 과정에서 목포지역 첫 환경단체라 할 수 있는 영산강보존회가 탄생했다. 이를 계기로 1993년에는 환경운동연합 창립 고문으로 참여하는 등 환경운동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서 박사는 지난 1986년 9월에는 삼학도 시멘트 사일로(저장고) 건립을

제지하기 위해 삼학도보존회를 만들었고, 1987년 7월에는 유달산 케이블카 가설을 저지하기 위해 유달산 보존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김성환 농림부 장관) 시절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을 막아냈다.

그는 목포녹색연구회, 목포환경과 건강연구소, 목포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를 잇따라 창립해 현재 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무등문화상(84년), 호남인상(91년), 교보환경문화상(98년), 국민훈장 동백장(2000년) 등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정영순 여사와 자녀 영숙·인근·의숙·지근·진근 씨, 사위 민주평화당 전정배(광주 서구) 의원 등이 있다. 빈소는 목포시 상동 효사랑장례식장에 마련됐고, 장지는 무안군 봉담면 봉명리 노송정마을 선영이다. 발인은 16일 오전.

/목포=고구석기자 yousou@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 화측

- ▲윤영균(전 광주시청 과장)·홍옥남씨 아들 광석군 송기상(전 한국수력원자력 처장)·이명희씨 딸 혜연양=24일(토) 오후 1시 광주 광산구 광산대로 509 아름다운컨벤션 2층 베르사체
- ▲김강수(은퇴 목사)·이은혜씨 아들 요셉(나주 중앙농협)군 정순오·송미화씨 딸 인영양=31일(토) 오후 1시30분 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179 (수송동 22-7) 피로연 일시 21일(수) 낮 12시 광주시 동구 지산동 베네치아
- ▲김정순(해양도시가스 사장)·오영희(교사)씨 장남 태균군 신윤섭·정경남씨 장녀 고은양=4월 7일(토)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 아모리스 역삼 GS 타워 1층 아모리스홀.

### 중친회

- ▲선산(일선) 김씨 광주·전남 중친회=17일(토) 오전 10시30분 서부 상무자우로 1499 라마다프라자호텔 4층 대연회장

062-717-7000, 010-4817-9742.

### 알림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지원팀의 운영=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 ▲서구열린마음상담센터 중독 문제 전문상담=월~수요일 오전 10시~5시 무료상담 062-373-0203.
- ▲장흥군 풍수지리 무료공개강좌=명당, 전원주택, 수맥, 영상강의 8일(목) 오후 7시 장흥 청소년수련관 1층 강의실 문의 010-8000-3190.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양택, 음택, 수맥, 나경/입향론, 비결명당, 장법

- 요강등이론과현상 24일(토) 오후 1시30분~5시 광주대 호심기념도서관 5층 010-3609-8117.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무로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 여부 결정 010-7274-4321.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출덕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 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족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 12~22세 남자. 062-953-6101.
- ▲열린마음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

- 여가능 매주 월~금 오후 2~6시 062-526-3370.
- ▲전문문화 보존 연구회원=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충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 모집
- ▲남부대 풍수지리 무료공개강좌=3일(토)오후 1시30분~6시 남부대 산학관 3층 세미나실 명당, 전원주택, 수맥, 영상강의 문의 010-8000-3190
- ▲광주향교 한문수강생 모집=개강 3월 5일, 매주 월,수,금 강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각각 40명 선착순 모집 062-672-7008,010-4329-0205.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전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

- 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 ▲꿈을 듣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

- 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 ▲푸른길통통문화마을 회원=푸른길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b>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b>	
<p><b>401호 故조옥순 님(여/91세)</b> 子/子婦 : 김성찬(이순덕, 성북·윤성희, 성무·영봉교, 삼민·장자욱) 女/孫 : 김미실(이재수, 박상석) 孫 : 김재중, 민중, 태중, 연중, 일중, 호중, 우중 •발 인 : 3월 15일 •장 지 : 영광군내 선영</p>	<p><b>402호 故정문철 님(남/50세)</b> 兄弟 : 정환인, 영근, 영남, 문선, 영길 •발 인 : 3월 16일 •장 지 : 영광공원</p>
<p><b>102호 故이호영 님(남/68세)</b> 子/子婦 : 이만수(이민영, 해수) 女 : 이경민 •발 인 : 3월 16일 •장 지 : 영광공원</p>	
<p><b>함께 할 10년, 함께 할 100년</b> <b>금호 장례식장</b> 062-227-4000 www.mykumho.com</p>	